

한달 새, 영유아(0~6세)에서 수족구병 3배 이상 증가

- 수족구병 봄철 유행에 따라 손, 발 수포 등 관련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병원 진료 당부
- 개인 위생 수칙 준수 및 어린이집, 유치원 등 영유아 집단시설에서의 환경 소독 강조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전국 109개 의료기관이 참여한 수족구병 표본감시 결과, 수족구병 의사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영유아(0~6세)의 경우 한달 전(15주차)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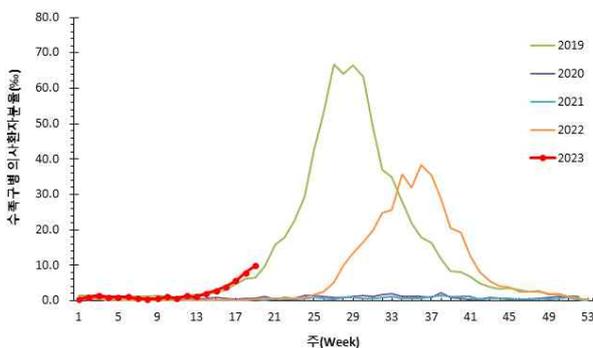
* 영유아에서의 수족구병 의사환자 분율(외래환자 1,000명당) : '23년 15주(4.9.~4.15.) 4.0명, 16주 5.0명, 17주 7.5명, 18주 11.0명, 19주 13.8명

<2023년 연령별 수족구병 의사환자 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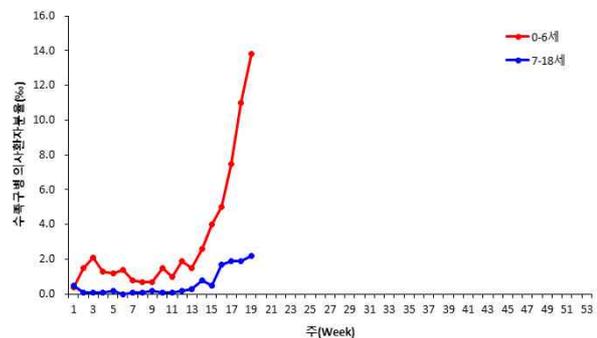
구분\주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전체	0.5	1.0	1.5	1.0	1.0	1.1	0.6	0.5	0.6	1.1	0.8	1.4	1.1	2.0	2.9	3.9	5.6	7.9	9.9
0-6세	0.4	1.5	2.1	1.3	1.2	1.4	0.8	0.7	0.7	1.5	1.0	1.9	1.5	2.6	4.0	5.0	7.5	11.0	13.8
7-18세	0.5	0.1	0.1	0.1	0.2	0.0	0.1	0.1	0.2	0.1	0.1	0.2	0.3	0.8	0.5	1.7	1.9	1.9	2.2

* 수족구병의사환자 발생분율(%) : 수족구병의사환자수 / 전체 외래환자수 × 1,000

** 수족구병 표본감시결과 확인 :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 홈페이지(<https://npt.kdca.go.kr>)
→ 발간자료 → 주간소식지 → 감염병 표본감시 주간소식지(매주 목요일 17시 이후)



<주별 수족구병 의사환자 분율>



<연령별 수족구병 의사환자 분율>

코로나19 유행 이후 '22년도에 3년만의 계절적인 유행이 있었으며, 올해도 예년과 유사한 시기에 발생 증가가 확인됨에 따라, 코로나19 유행 이전과 유사한 수족구병 유행이 예상된다.

수족구병은 입 안, 손, 발에 수포성 발진을 나타내는 것이 주된 증상이며, 발열, 무력감, 식욕 감소, 위장관증상(설사, 구토)이 나타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증상 발생 후 7~10일 이후 자연적으로 회복하는 질병이나, 수막염, 뇌염, 심근염, 마비증상 등 드물게 합병증이 동반될 수 있기에,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받아야 한다.

특히, 6개월 미만의 영아,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 증상이 심한 경우(2일 이상의 발열 등)는 반드시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6개월 미만의 영아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 (소변을 보지 않는 등)	증상이 심한 경우 (2일 이상의 발열)
▶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치료		

수족구병은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예방 및 전파차단이 중요하며, 수족구병이 의심될 경우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고, 어린이집, 키즈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며, 컵이나 식기등을 따로 사용하고, 생활공간의 분리가 필요하다.

▶ 수족구 증상이 의심되거나 발견된다면

-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고, 어린이집 등 집단생활은 자제해주세요.
-  컵이나 식기 등을 따로 사용하고 생활공간을 분리해주세요.
-  환자가 있었던 공간의 손이 닿는 표면이나 물건(장난감이나 문 손잡이 등)을 자주 닦고 소독해주세요.

또한 수족구병의 예방 및 전파 방지를 위해 철저한 위생 관리가 필요하며, 외출 후, 식사 전·후, 기저귀 뒤풀이 후, 화장실 사용 후, 코를 풀거나 기침·재채기를 한 후, 환자를 돌본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손씻기 실천 상황					
 화장실 이용 후	 음식을 먹기 전·후	 기저귀를 갈거나, 화장실 다녀온 아이를 닦아준 후	 배변 상처나 창상을 다룰 때	 동물, 사료, 동물 관련 폐기물 등에 접촉한 후	 애완동물 접촉, 먹이를 준 후
 음식을 준비할 때 (생고기, 가금류 등 접촉 후)	 아픈 사람을 간병할 때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 후	 쓰레기를 취급한 후	* 출처: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CDC))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는 장난감, 문 손잡이 등 손이 닿는 집기의 소독 관리가 필요하다(<붙임 2> 참조).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수족구병은 영유아에서 많이 발생하는 감염병인 만큼 키즈카페 등 영유아 관련 시설에서는 수족구병 예방관리를 위해 손 씻기 및 물품 소독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특히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는 수족구병에 걸린 경우 완전히 회복한 후 등원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수족구병 예방수칙〉

① 올바른 손 씻기

- 흐르는 물에 비누나 세정제로 30초 이상 손씻기
- 기저귀 뒤풀이 후, 배변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 후, 환자를 돌본 후
- 특히 유치원, 어린이집 종사자 및 영유아 관련 자

② 올바른 기침예절

- 옷소매 위쪽이나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하기

③ 철저한 환경관리

- 아이들의 장난감, 놀이기구, 집기 등을 소독 하기(붙임 3 참조)
- 환자의 배설물이 묻은 옷 등을 철저히 세탁하기

④ 수족구병이 의심되면

- 바로 병원에서 진료 받고 등원 및 외출 자제 하기(발병후 1주일)

- <붙임> 1. 수족구병 개요
 2. 수족구병 바로알기 카드뉴스
 3. 수족구병 발생 시 소독방법
 4. 수족구병 질의·응답

담당 부서	감염병정책국 감염병관리과	책임자	과 장	곽 진 (043-719-7140)
		담당자	연구관	김인호 (043-719-7141)
			연구사	김형준 (043-719-7152)

붙임 1

수족구병 개요

병 명	수족구병(Hand, foot and mouth disease)
정 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콕사키바이러스나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열 및 입안의 물집과 궤양, 손과 발의 수포성 발진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
질병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감염병: 지정 감염병 □ 질병코드: ICD-10 B08.4
병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콕사키바이러스 A16형이 주원인 □ 그 외에 엔테로바이러스 71형, 콕사키바이러스 A5, A6, A7, A9, A10형, B2, B5형 등도 원인이 됨
전파경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접촉이나 비말을 통해 사람 간 전파 □ 오염된 물을 마시거나 수영장에서도 전파 가능 □ 전파의 위험이 높은 장소 : 가정(감염자가 있는 경우), 보육시설, 놀이터, 병원, 여름캠프 등 많은 인원이 모이는 장소
잠복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7일
증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신증상 : 발열, 식욕감소, 무력감 □ 위장증상 : 설사, 구토 □ 발진/수포(물집): 주로 입, 손, 발, 영유아의 경우 기저귀가 닿은 부위
진 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 검체(대변, 뇌척수액, 인후도찰물, 비강세척액 등)에서 특이유전자 (VP1) 검출
치 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열 진통제로 증상을 완화, 탈수로 인한 수분 보충 등 대증요법 * 아스피린은 사용하지 말 것
치명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으로 0.1% 미만이나 엔테로바이러스 71형에 감염된 경우 뇌간 뇌척수염, 신경원성 폐부종, 폐출혈 등 합병증이 동반될 경우 치명률이 높음
관 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관리 :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고 등원 및 외출 자제 □ 접촉자관리 : 발병을 감시하며, 발병 시 등원 및 외출 자제
예 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바른 손 씻기의 생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 외출 후, 배변 후, 식사 전·후, 기저귀 교체 전·후 - 특히 산모, 소아과나 신생아실 및 산후 조리원, 유치원, 어린이집 종사자 □ 올바른 기침예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옷소매 위쪽이나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하기 □ 철저한 환경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들의 장난감, 놀이기구, 집기 등을 소독 하기(붙임 3 참조) - 환자의 배설물이 묻은 옷 등을 철저히 세탁하기 □ 수족구병이 의심되면 바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등원 및 외출 자제(발병후 1주일)

2023.3.31. 질병관리청

🗨️ **평등** 이달의 건강소식

아이의 입이나 손발에 물집이? 수족구병

😬 어떤 증상들이 있죠?

🤔 어떻게 치료·예방하죠?

1/8

2023.3.31. 질병관리청

🗨️ **평등** 이달의 건강소식 **수족구병**

😬 "수족구병"이 뭔가요?

입 안이나 손, 발 등에 수포성 발진이 나는,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증입니다.
* 콕사키바이러스, 엔테로바이러스

주로 5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발생하지만 더 큰 어린이와 성인도 감염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5월부터 환자 발생이 증가하여 6~7월경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2/8

2023.3.31. 질병관리청

🗨️ **평등** 이달의 건강소식 **수족구병**

😬 어떤 증상들이 있죠?

입 안, 손, 발에 수포성 발진이 주된 증상이며, 입 안의 수포 때문에 아이가 음식물 섭취를 힘들어 할 수 있습니다.
드물게 합병증으로 인한 수막염, 뇌염, 폐출혈, 심근염, 급성 이완성 마비가 발생하여 사망할 수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발진과 수포			전신증상		위장증상	
혀, 볼안쪽, 구강전막, 인두, 구개, 입천장, 잇몸, 입술	손	발	발열, 무력감, 식욕감소	설사, 구토		

시기별 증상

1 잠복기 ◯ 접촉 후 3~7일 2 초기(2~3일) ◯ 손, 발 및 입안 수포, 발열 등
3 중기(3~4일) ◯ 발진 및 수포 호전 4 말기(7~10일) ◯ 대부분 호전

3/8

2023.3.31. 질병관리청

🗨️ **평등** 이달의 건강소식 **수족구병**

🤔 어떻게 감염되는 건가요?

환자의 비밀(침방울), 분비물(침, 가래, 콧물, 대변), 수포의 진물의 접촉에 의해 감염됩니다.

환자의 분비물에 오염된 물 혹은 물건을 통한 감염도 가능합니다.
(염소 소독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 물놀이를 통해서도 감염 가능)

바이러스 배출기간

호흡기 1~3주 분변 7~11주

4/8

땡땡 이달의 건강소식 수족구병



치료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수족구병을 치료하는 약은 없으며, 증상에 따른 대증치료를 하되 아래의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치료받도록 합니다.



6개월 미만의 영아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 (소변을 보지 않는 등)



증상이 심한 경우 (2일 이상의 발열)



5/8

땡땡 이달의 건강소식 수족구병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수족구 증상이 의심되거나, 발견된다면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고, 어린이집 등 집단생활은 자제해주세요.



컵이나 식기 등을 따로 사용하고 생활공간을 분리해주세요.



환자가 있었던 공간의 손이 닿는 표면이나 물건 (장난감이나 문 손잡이 등)을 자주 닦고 소독해주세요.



6/8

땡땡 이달의 건강소식 수족구병



수족구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습니다.
2. 손을 30초 이상 비누로 자주 씻고, 아래의 경우 반드시 손을 씻도록 합니다.



- 1 기저귀 뒹치리 후,
- 2 화장실 사용 후
- 3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한 후,
- 4 환자를 돌본 후

3. 손을 씻을수 없을때는 알코올이 포함된 손소독제를 활용합니다.



7/8

땡땡 이달의 건강소식

“

수족구병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누리집**(<https://www.kdca.go.kr>)에서,

매달 새로운 건강 지식을 알려주는 이달의 건강소식은, **카카오톡 채널 '대한민국 질병관리청'**을 추가하고 메시지로 받아보세요~!

”

8/8

붙임 3 수족구병 발생 시 소독방법

□ 환자가 만진 물건 등은 소독액(염소 0.5%(5,000ppm))을 뿌린 후 10분 후에 물로 씻어냄.

□ 소독시 주의사항

- 장갑, 마스크, 앞치마를 착용 후 소독 실시
- 소독을 할 때는 창문을 연 상태(외부 공기와 접촉된 상태)에서 실시하고 소독 후에도 충분히 환기 실시
- 소독액은 가연성 물질에 가까이 두지 말고 사용 후에는 소독 효과가 떨어지므로 보관하지 말고 버릴 것
- 소독 후에는 반드시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올바른 손씻기

□ 소독액 만드는 방법

염소 0.5% (5,000ppm)	
① 빈 생수통 500ml에 종이컵1/3양의 염소계 표백제를(4%기준) 붓습니다.	
	
② 물을 더해 500ml를 채운 후 뚜껑을 닫아 잘 흔들어 섞습니다.	
	

붙임 4 수족구병 질의·응답

Q1

수족구병이란 무엇인가요?

- 주로 5세 이하 영유아의 콕사키바이러스,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병입니다.
- * 콕사키바이러스 A16형은 수족구병을 일으키는 매우 일반적인 원인균입니다.
- * 엔테로바이러스 71형은 아시아에서 여러 번의 대규모 수족구병 발병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Q2

수족구병에 걸릴 위험이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유아 및 아동(주로 5세 이하)에서 발생하며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시설에서 발생합니다.
- 학생 및 성인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나 증상은 경미합니다.

Q3

수족구병의 증상은 무엇인가요?

-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나타나는 수족구병의 증상은 발열, 인후통, 식욕부진 및 피로감 (권태감) 등입니다.
- 발열 1-2일 후에, 입 안의 볼 안쪽, 잇몸 및 혀에 작은 붉은 반점이 나타나며, 수포 또는 궤양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손, 발 및 엉덩이에 피부 발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가끔 팔과 다리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 발진에는 용기 또는 편평형 붉은 반점과 수포도 포함됩니다.
- 수족구병 증상은 보통 경미하며 대개 7-10일 내에 저절로 없어집니다.
- 수족구병에 걸린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 그러나 드물게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으며 면역체계가 아직 발달되지 않은 어린 영아의 경우, 엔테로바이러스 71형이 원인인 경우 합병증의 발생이 더 높습니다.
 - 뇌간 뇌척수염, 뇌염이나 회색질척수염과 같은 마비증상, 신경성 폐부종, 폐출혈, 심근염, 심장막염, 쇼크 및 급속한 사망 등을 초래하는 등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Q4

수족구병은 어떻게 전염되나요?

- 일반적으로 사람간의 접촉에 의해서 전파됩니다.
 - 감염자의 대변으로 오염된 손을 거쳐 다른 사람에게 전파됩니다.
 - 감염자의 코와 목 등 호흡기 분비물, 물집의 진물 또는 타액과의 직접접촉으로 전염됩니다.
 - 즉 감염된 사람이 손을 씻지 않은 채 다른 사람을 만지거나 물건의 표면을 오염시킬 때 흔히 전파됩니다.
 - 수족구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환경 표면에서 장시간 생존할 수 있습니다.
- 수족구병에 걸린 사람은 발병 첫 주에 가장 전염성이 크지만, 증상이 사라진 후에도 몇 주간 계속해서 전염시킬 수 있습니다.

Q5

수족구병은 얼마나 빨리 증상이 나타나요?

- 수족구병 증상은 보통 최초 노출 및 감염 3-7일 후에 나타납니다.

Q6

수족구병은 어떻게 진단하나요?

- 일반적으로 수족구병 진단을 위해 실험실 검사는 하지 않습니다.
 - 보통 환자의 나이, 증상 및 발진이나 궤양의 종류와 위치를 근거로 수족구병을 진단합니다.
- 중증 증상 경우는 인후 도찰(throat swab)법을 이용하거나 물집의 진물 또는 대변을 채취하여 검사합니다

Q7

수족구병은 어떻게 치료하나요?

- 특별한 치료제는 없으나, 증상완화를 위해 대증요법을 사용합니다.
 - 발열이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해열 진통제를 사용
 - 입 안의 궤양으로 삼키기가 고통스럽고 어려워서 수분을 섭취하지 않아 심각한 탈수현상이 발생할 경우, 정맥용 수액 치료

Q8

수족구병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나요?

- 수족구병의 경우 아직 국내에 상용화된 백신은 없으며, 임상시험이 진행 중입니다.
- 따라서 올바른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감염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 수족구병 환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모두가 화장실 사용 후, 기저귀를 간 후 또는 코와 목의 분비물, 대변 또는 물집의 진물을 접촉한 후에는 반드시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의 손씻기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 비말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침예절도 준수해야 합니다.
- 장난감과 물건의 표면은 먼저 비누와 물로 세척한 후 소독제로 닦아야 합니다.
- 수족구병에 걸린 아동은 열이 내리고 입의 물집이 나올 때까지 어린이집, 유치원이나 학교에 가지 말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증상이 나타난 어른의 경우도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직장에 출근하지 말 것을 권장합니다.